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기는 대단히 어렵다.
격렬히 반발하거나 통렬히 반성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성기자 - 한겨레

오히려 이들에게 '가족'은 이런 자기만의 즐거움을 금지하는 '법의 이름'이었을 뿐이다.
이들에게 이 법을 어기는 '외박'은 자신의 존재기반을 완전히 걸어야 하는 도박이기도 했다.

이택광-문화평론가

나는 애초에 엄마의 삶이 재미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었다. 엄마의 우선순위는 가족, 그중에서도 '나'였다....이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보낼 차례이다.
나도 엄마의 외박을 지지한다고, 엄마의 삶과 가능성을 긍정한다고, 오늘 전화를 걸어야겠다.

취업준비생 김대훈

외박

은 공동체 상영운동
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당신! 그런데 독립 영화제는 일년에 몇 번 뿐이고,
지역 영화관에서는 잘 상영하지도 않아서 마음만 태우고 계셨나요.
공동체 상영은 학교와 단체, 소모임, 지역축제, 작은 마을까지도 관객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는 대안적 상영방식입니다.

동네에 영화관이 없어도 공동체 상영을 통해 다양한 다큐멘터리도 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문화생활도 즐겨보세요.

〈외박〉공동체 상영문의

: 02.353.4082 010.9288.4088 : 빨간거북
: weabak@daum.net
: http://blog.daum.net/weabak



‘외박과 동침 그리고 번식’

홍예버여성노동자들의 510일 파업기록 (2007-2008)

WEABAK
STAYED OUT OVERNIGHT

외박

연출의도

일하는 여성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이 아직도 어색할 정도로 여성에게는 어머니나 주부라는 말이 더 친근하다. 집 밖에서는 아줌마로 불리는 여성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가 여전히 가족 안에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하는 여성들은 일도 잘해내고 집에서는 아이를 돌보고 가사일도 잘해내야 한다.

게다가 일터에서는 불안정한 고용과 차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동권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성들의 일과 가족의 문제.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여성노동자들의 파업과정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변하지 않는 여성들의 일과 가족의 문제.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김병오 | 음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MFA, 푸전음악그룹 449PROJECT 활동 이지영 | 일러스트 시각이미지작가. 현재 다양한 개인작업과 함께 시각이미지집단 'REFUGEE'에서 활동 중 김영호 | 타이틀, CG 2009년 8월, 37세의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감 안창영 | 촬영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기자
자경과 팽(Peng) | 조감독 영페미니스트 김미례 | 감독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 <동행> <노동자다 아니다>, <노가다> 제작

2007년 6월 30일, 대형마트 홈에버에서 일하던
계산원과 판매원들이 월드컵 홈에버 매장을 점거했다.

이 사건은 지극히 평범했던 여성들이 주도한 유통업 최초의 매장점거 농성이었다. 예정된 일박이일의 점거농성은 21일간 이어진다. 이들은 이 매장점거농성에서 일터와 가사일로부터 벗어난 일시적인 자유와 즐거움을 경험한다. 이들의 투쟁은 진보진영으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투쟁'이라는 국민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510일간 진행된다.

Synopsis



**아이를 보고 가사 일을 위해서 집으로 갔다가 농성장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공적인 불일을 마치고 자신들만의 휴식처로 돌아오는 사람들 같았다.**

이들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농성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 대오를 어머니며 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방문자들은 모두 혼란스러워했다.

파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이들은 가족을 위해서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더욱 자신들의 투쟁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았던 거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식 또한 '어머니' 였다.

자신들의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했던 연대가 당사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게 했을까?
얼마나 당사자들에게 힘이 되었을까? 그리고 유익했을까? 노동운동이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건가?
노동운동이 노동조건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일상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